



4면

'청룡기 고교야구 우승' 전주고 격려

전주매일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음 6월 13일) 제35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VC포럼' 과 연계 지니포럼, 더 풍성해진다

차지도, 재외동포청과 10월 23~24일 전북대 일원서 개최
국제금융컨퍼런스·스타트업 피칭·금융세미나 등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가 10월 23~24일 재외동포청과 함께 전북대 일원에서 지니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제5회째인 지니포럼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이 협업체 개최하는 글로벌 금융·경제 네트워크 행사다. 특히, 오는 10월 22~24일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포럼은 △개막식 △국제금융컨퍼런스(VC포럼, 금융포럼) △스타트업 피칭대회 △금융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구성·개최된다. 메인행사로 국제금융컨퍼런스의 1세션인 VC포럼에서는 국내외 VC(벤처캐피탈)들의 스타트업 해외진출과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2세션은 금융포럼으로 글로벌 캐피탈 시장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탄소중립과 자산운용을 핵심 주제로 국내외 연금 기관들의 ESG 투자 동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스타트업 피칭대회에서는 스타트업 피칭 결승전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사례발표 등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의 투자연계 및 글

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지니포럼에서는 금융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형 금융 행사를 추가적으로 기획·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오픈토크(Open Talk)형식의 금융세미나와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전략 수립 교육, 본인의 재무상황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재무관리교육 등 금융이카데미도 개최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지니포럼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함께 개최된다"며, "국내외 금융·경제인들의 교류·협력 강화와 더불어 일반인도 금융과 친숙해질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수해복구활동에 직접 나선데 이어 17일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완주군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장비·인력 등 행정력 총동원 복구 지원”

김관영 도지사, 완주·익산 등 피해지역 찾아 복구상황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수해복구활동에 직접 나선데 이어 17일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완주군과 익산시 지역을 또 찾아서 응급복구 상황을 살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을 만나 응급복구 진척상황 등을 공유하며 수해로 인한 고충을 위로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주요 피해지역인 완주군 소재 화산면에 위치한 축산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축사 피해를 입은 농가주를 위로했다. 이어 화산면에 위치한 고산천 지방하천 붕괴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지켜봤다. 이번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된 고산천은 정비 등을 동원해 토마데 쌓기 등 응급복구를 진행중이며, 다음주까지 정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의원 등 소속 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북자치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합동 현장 점검 활동에도 동참했다. 이들은 호우 피해 지역인 익산시 용포면 소재 블루베리 농가와 함라산 산사태 피해현장을 함께 방문해, 피해농가를 위로한 뒤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계획을 점검했다. 블루베리 농장은 현재 물베기 작업과 피해 농작물을 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룡목마을 함라산 산사태 지역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진행해 추가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중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군·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빠짐없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복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 등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중앙합동조사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비 확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국회 행안위 위원 일동

익산 수해 복구 상황 점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신정훈 위원장, 한병도·이원택·이해식 의원) 일동이 익산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 농어촌공사 이정문 전북본부장, 금강유역환경청 한형동 하천관리과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남산면 산북천과 망성면 화산배수장, 용안면 연동지구, 용포면 블루베리 농가 등 재해 현장을 돌아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18일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당 관계자 150여명이 익산시 망성면 일원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가상현실로 살펴보는 전북 직업교육 정보

전북자치도교육청, 직업계고 메타버스 구축... 진학정보 등 운영
26일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 200명에게 모바일 쿠폰 증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직업계고 메타버스(https://zep.us/play/2Q5IRP)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업계고 메타버스에는 우주를 디자인 콘셉트로 도내 각 지역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진학 정보, 학과 특성, 홍보 동영상, 학교별 SNS, 상담 코너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지도 위에 우주선 형태로 구현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중 관심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우주선을 타고 학교별 가상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학교별 가상공간에는 학교를 상징하는 일러스트를 배치해 보다 직관적으로 학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총 31개의 학교별 가상공간에서는 학교별 특징, 자격증 취득, 취업 정보, 학교 홍보 동영상, 입학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실을 통한 학교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직접 질의할 수도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향후 직업계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구축한 직업계고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중학교 진로 수업 지도안과, 학습 자료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메타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26일까지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메타버스 출석체크 점수와 메타버스 게임존에서 직업계고

관련 퀴즈 점수를 획득, 두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200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직업계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전북개발공사

www.jbdc.co.kr